



최연의 산 이야기 <37> 소백산 5

우리나라 최초 사액서원 소수선원에는 성리학을 고려에 전해 온 안향을 배향하고 있다.

# 죽령을 차지하면 천하를 얻는다

하회마을은 서예 유성룡을 키웠다.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것은 국보 제121호인 하회탈과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인 '하회 별신(別神)굿 놀이'이다.

하회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탈로 고려 중엽 이후 전래된 것으로 알려진다.

국보 제121호 하회탈은 11개다. 하회탈은 처음 제작 당시에는 12개였으나 양반, 부네(젊은 계집), 선비, 중, 각시, 할미, 백정, 초랭이(하인), 이매(서민) 9개만 전해지고 있다. 국보로 지정된 하회탈에는 이웃 병산마을의 탈 2개가 합쳐진 것이다.

하회탈을 대표하는 턱없는 이매탈에 대한 전설이 흥미롭다. 허(許)도령은 신(神)으로부터 가면제작의 명을 받는 꿈을 꾸다. 가면을 다 만들기가까지 작업장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전신전력으로 가면을 만들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허도령이 보이지 않자 그를 연모하던 처녀가 연심을 못 참고 허도령의 모습을 엿보았다. 허도령은 이매의 턱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숨을 죽였는데 미완의 탈이 오히려 하회탈의 특징이 됐다.

'하회 별신굿 놀이'는 허도령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음력 정월대보름 무렵 마을 사람들이 그가 만든 탈을 나눠 쓰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놀이였다. 이후 해학과 풍자를 나타내는 12마당의 가면극으로 연출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백두대간(白頭大幹) 상에 있는 소백산을 넘나드는 고

개는 죽령(竹嶺)이다. 죽령의 북쪽은 단양(丹陽)이고 남쪽은 풍기(豊基)다.

죽령은 158년 죽죽이라는 신라인이 처음 개척한 것으로 삼국사기에 전하고 있으니 고개의 나이가 무려 1800살이 넘는다. 서울의 한강유역과 마찬가지로 죽령도 삼국의 쟁패지(爭覇地)였다. 적성산성에서 발견된 신라 적성비(赤城碑, 국보 198호)는 신라 진흥왕이 고구려로부터 죽령 북쪽의 단양 등 10개 군을 빼앗은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죽령은 백제의 땅이었다가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땅이 되기도 했으나 결국은 신라 진흥왕의 땅이 됐다. 고려 때는 왜구가 쳐들어오는 길목으로, 조선 때는 영남좌도 일원의 고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 되기도 했다.

조선시대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서쪽 마을인 상주 예천 선산 김천 성주 등은 경상우도(영남우도)라 하고, 동쪽 마을인 봉화 영주 안동 영양 청송 등은 경상좌도(영남좌도)라고 한다. 임금이 자리(서울)에 앉아서 보면 동쪽이 왼쪽이고 서쪽이 오른쪽인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 좌도고을 사람들은 죽령을 우도고을 사람들은 조령(문경새재)을 이용했다.

죽령에 기대고 있는 회방사는 <월인석보(月印釋譜)> 12권을 보존하고 있었다.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참고해 세조 5년(1459)에 간행한 훈민정음 이후 최초의 불경언해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때 미군에 의해 절과 함께 소실됐다.

죽령에는 김유신과 죽지랑 사당이 있었다. 그러나 사당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회방사 입구에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시비가 세워져 있을 뿐이다.

'죽지(竹旨)'는 진덕여왕 재상 술종(述宗)의 아들이다. 술종이 삭주(지금의 춘천)의 도둑부로 부임하려 가는 길 죽령에서 한 거사를 만나 정답게 얘기하고 헤어지는 꿈을 꾸다. 꿈을 꾸 그날 거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술종은 거사가 자기 집에 환생했다고 믿었다. 술종은 훗날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고개의 이름을 따서 죽지라 지었다.

죽령의 남쪽 풍기에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이 있다. 이 터에는 성리학의 대가 '동방주자(東方朱子)' 안향(安珦)선생이 학문을 연마한 숙수사(宿水寺)라는 절이 있었다. 조선중종 37년 풍기군수 주세붕은 숙수사를 없애고, 안향을 제사하기 위해 사당을 세웠다.

소수서원이 세워진 뒤 이곳은 학문에 힘쓴 선비들이 많이 배출됐고 안향 선생을 흠모하는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소수서원 터는 신령스런 거북이가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인 영기포란형(靈龜抱卵形)의 명당이다. 거북이는 알을 아주 많이 낳기 때문에 거북형의 명당에는 많은 인물이 나온다고 한다. 소수서원 바로 옆으로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고 그 물가에는 소담스러운 정자들이 세워졌다.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파는 꽃은

### 덧에 걸린 삶

기말고사 성적을 보고 아내가 아들에게 불만을 얘기한다. 왜 이렇게 국어점수가 좋지 않게 나왔냐는 거였다. 79점이면 썩 좋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내가 아들에게 기대했던 점수는 아니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생각하니 아들이 평소 책을 빨리 읽는 버릇이 있음에 생각이 났었다. 내가 2-3일 걸려 읽는 분량을 아들은 두세 시간에 읽는다.

사람마다 독서 능력이 다르다는 걸 부인하지 않는다. 빨리 읽으면서도 글쓴이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책을 빨리 읽는 사람의 역량을 편견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들이 빠르게 책을 읽다보니 국어점수가 낮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현존아 아빠가 생각해보다가 내가 책을 너무 빨리 읽기 때문에 국어점수가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책을 빨리 읽어서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깊이 있는 맛을 느끼기 힘들게 되지. 천천히 읽으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까지 파악하면서 네 생각과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져보고 글 속에서 그걸 풀이해보기도 하면서 나아가야 제대로 책을 읽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 10권의 책을 속독하기보다는 천천히 정독하며 1권을 읽는 게 더 낫지. 작가와 대화를 하면서 책을 읽어야지 내용만 파악하기 위해 읽는다면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들은 긍정을 하면서도 못내 얼굴이 굳어졌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고 아들을 제방으로 보내고 나니 어두운 얼굴이 또 못내 마음에 걸린다. 내가 아들의 공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서였다. 아들이 두 아이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내가 알아본 바로는 1학년 때부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아이와 그 아이와 단짝인 아이, 두 명으로부터 합동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한두 해 전에도 피가 옷에 묻은 채 들어와서 아내가 선생을 찾았던 일이 있었다. 주먹을 휘둘러 아이들 위에 올라선 아이는 공부도 잘 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중적으로 학교를 들락거리며 담임선생과 가깝게 지냈고 담임은 그녀의 아들을 유난히 아끼며 추켜세웠다고 한다. "너희 다들 ○○같이만 해라"는 말을 달고 살았고 틈날 때마다 아이들 앞에서 포근히 안아주었다고 한다. 그 반대로, 반에서 어눌해 보이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하는 아이는 툭툭 때리고 밀어 넘기는 등의 차별행위를 했다고 한다. 견디다 못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아이도 있었다. 한 학년 12명이 11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여자도 남자도 그리고 때리는 아이와 맞는 아이도 나뉘는 게 그때부터였다.

5학년 땀 내가 직접 담임을 찾았다. 담임은 아들과 그 아이를 면담도 하고 주의도 주면서 살피며 내게 전화를 주곤 했다. 나는 아이가 당당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맞지도 말고 때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으나 이미 기세가 꺾인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와 대등하게 자라나기 힘든 일이었다. 좁은 지역인 탓에 별다른 일이 없다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이어질 판이었다. 내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은 하나였다. 공부만은 앞서야 한다. 공부를 앞선다면 합부로 폭력을 휘두르지 못할 거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 하는 놈이 최고 아닌가? 아들을 붙들고 나는 영어를 아내의 수학을 가르쳤다. 한 학기를 가지면서 아들은 그 아이를 앞서나갔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중학교 일학년도 끝나갈 무렵이다. 아내가 공부 안한다며 아들을 질책할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아들에 대한 공부태평은 아내의 말만으로도 넘치고 있으니 나라도 이제 좀 느긋이 지켜보기로 하자.

그게 쉽지가 않았다. 정규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얻고 남들 위에 서서 살길 바라는 마음이 내게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어찌 생각하면 답답한 그 인생을 나 또한 소원이라도 되는 양 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왜 아들은 틀에 얽매어 살길 원하는가? 아무래도 나 또한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덧에 걸린 모양이다. 남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어렵다.



서인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080-0766-8888

**수공예양초**

① 말남 야광 연꽃 양초 7.0 f × 33cm  
④ 약복 야광 연꽃 양초 7.0 f × 33cm  
② 말남 1호 그림 양초 5.9 f × 18cm  
⑤ 말남 PC삼 초 5.5 f × 4cm 연소시간 약 8시간  
③ 약복 1호 그림 양초 5.9 f × 18cm  
⑥ 한봉 금강정 세트 5.9 f × 18cm

**한말남 양초**

② 말남초 90cm  
③ 말남초 47.7 f × 25cm  
④ 말남초 47.7 f × 13cm  
⑤ 말남초 47.7 f × 13cm  
⑥ 말남초 47.7 f × 13cm  
⑦ 말남초 3호 반야심경 4.7 f × 13cm  
⑧ 말남초 2호 반야심경 5.9 f × 14cm  
⑨ 말남초 1호 반야심경 연화형(꽃)  
⑩ 말남초 연봉 한봉(꽃) 연화형(꽃)  
⑪ 말남초 연봉 한봉(꽃) 연화형(꽃)  
⑫ 말남초 연봉 한봉(꽃) 연화형(꽃)  
⑬ 말남초 연봉 한봉(꽃) 연화형(꽃)  
⑭ 말남초 연봉 한봉(꽃) 연화형(꽃)  
⑮ 말남초 연봉 한봉(꽃) 연화형(꽃)  
⑯ 말남초 연봉 한봉(꽃) 연화형(꽃)  
⑰ 말남초 연봉 한봉(꽃) 연화형(꽃)  
⑱ 말남초 연봉 한봉(꽃) 연화형(꽃)  
⑲ 말남초 연봉 한봉(꽃) 연화형(꽃)  
⑳ 말남초 연봉 한봉(꽃) 연화형(꽃)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덧받)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덧받) 6cm]

#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리어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물삼!** 02)2004-8216  
문의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